

2018. 10. 29.(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0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I·SEOUL·U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서울페이추진반

서울페이추진반장	김형래	2133-5150
서울페이총괄팀장	이창현	2133-5131
서울페이구축팀장	채명준	2133-5136
담 당 자	장일진	2133-5132
	이광재	2133-5133
관련 홈페이지	http://seoulpay.or.kr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12쪽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연매출 8억↓ 자영업자 "수수료 0"… 서울시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

-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12월 중순 서울서 첫 개시… 2019년 전국 확산
- 연매출 8억 미만 결제수수료 0% 시행…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제로 혜택
- 소비자 40% 소득공제 혜택예정, 정부와 기본 인프라인 '공동QR' 개발 완료
- 29일부터 서울에 사업장 둔 누구나 온 오프라인 신청, 프랜차이즈·전통시장 등 설명회
- 소비자 이용편의 위해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사업자도 가맹 가능

- 종전 0.8%~2.3%였던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가맹점 모집이 10월 29일부터 시작된다.
-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가칭)서울페이 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하기로 협의 결정하였다.

- 우선,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제로(0%)를 적용 받는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카드가맹 업체(53만3천 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 따라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 8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는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연매출액 8억 원 이하	0%
8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0.3%
12억 원 초과	0.5%
※ 현재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0.8%~2.3%

-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최고 수준이다.
-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2,500만 원을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약 79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 원) 보다 48만 원 더 돌려받는 셈이다.
-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11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 QR' 개발도 완료했다.

-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 시기와 혜택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29일(월)부터 가맹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일반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 결제서비스의 명칭은 대국민공모('18.9.27.~10.22.)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언제 어느 곳에서나 편하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자도 가맹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일반사업자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11월중 참여사업자, 은행 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 현재 신용카드보다는 낮추되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보다는 높게 적용될 예정이다.

- 특히 시는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높아 카드수수료 부담이 컸던 음식점, 카페 등 식품위생接客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각 자치구,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가맹점 본사 등과 협력,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설명하거나 우편 등으로 가맹 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기존 노란우산공제 상담인력을 활용해 현장방문 등 가맹점 모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또,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지하철역상가와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등의 가입 확대를 위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가맹점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서울페이 홈페이지(<http://seoulpay.or.kr>)에서 직접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25개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17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방문,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서울페이 홈페이지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 후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 다만, 생업 때문에 사업장을 비우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가입방법 외에도 업종별로 다양한 신청방법도 마련했다.
 - 25개 지하도상가 입점업체는 상가별 상인회(서울시설공단), 지하철역상가 입점업체는 지하철역사무소(서울교통공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사를 통해 각각 가입할 수 있다. (*개별 가입도 가능)

- 가맹점 신청자는 11월 말~12월 초 판매점에 비치할 수 있는 ‘공동 QR세트’를 받아볼 수 있다.
 - 공동 QR세트는 ▲가게이름이 적힌 결제 QR코드판 ▲결제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안내판 ▲매장 내외부에 붙일 수 있는 서울페이 가맹점 스티커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신청자에 대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을 거쳐 11월 말까지 계약체결내역을 통지하고, 12월 초 까지 ‘공동 QR세트’를 배송할 예정이다.

-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서울 지역에서 우선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고, 2019년 초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 결제 중간단계 생략과 공동QR 사용으로 수수료 원가를 낮추고 저비용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으며,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 은행,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 준비 중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4개 광역지자체(부산, 인천, 전남, 경남), 11개 은행, 5개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는 지난 7.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결제사업자 - 수수료 면제, 은행 - 이체 수수료 면제, 정부와 지자체 - 공동QR 개발 및 가맹점 확보)

- 박원순 시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매출액 자체가 낮아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며
- “자영업자를 살리고 소비자 개인은 소득공제로 이익을 보고 나아가 국가경제 근간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업자들이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맹을 신청해 점차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확산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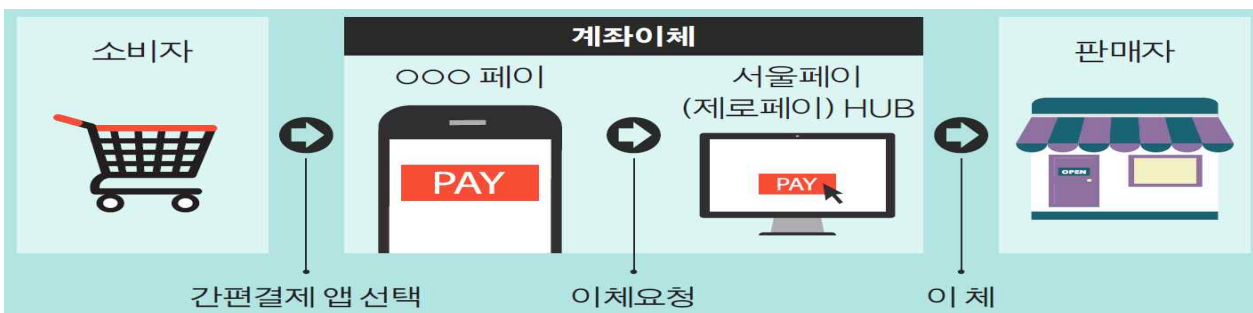
수수료 없이 현금대신 간편하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혜택도 받고

판매자는 0%대로 결제수수료 부담 덜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란?

- ◆ 소상공인(자영업자)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은행, 민간 간편결제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입니다.
- ◆ QR 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방식입니다
 - 소비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 →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됩니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 공식명칭은 대국민 공모(9.27~10.22)를 거쳐 10월말~11월초 결정될 예정입니다.

◆ 가맹점 모집은 10.29부터 / 서비스 시작은 2018.12월 중순이후

<질문>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는 민간회사의 간편결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별도의 결제시스템(앱)이 아닙니다. 기존의 민간 간편결제회사 앱 - 소비자 -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 시스템으로 결제되면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민간회사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동의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OO페이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 판매자는 결제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지며

- ▶ 소상공인은 연매출액 8억원 이하는 수수료 0%, 8억원~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

※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액의 0.8~2.3%를 카드수수료로 부담하여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의 30~50%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서울시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사업자는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가맹할 경우 일반사업자도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혜택

- ▶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공제율은 체크카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자격

- ▶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2018. 10. 29부터

■ 신청서류 :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포털에서 서울페이 검색 후, 서울페이 홈페이지(www.seoulpay.or.kr)에 접속하여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오프라인 신청)**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청, 동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등에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하도상가	상가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에 제출
지하철역상가	지하철역 사무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제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구청(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제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본사를 통해 가입 또는 직접 가입
개별 사업자	가맹신청서를 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로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총괄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E타워 11층 소상공인 간편결제 지원TF

■ 가맹신청자에게는 2018년 11월말~12월초에 판매점 비치용 QR세트 배송예정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사용가능한 앱 :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참여하는 민간회사의 앱

▶ 소비자는 서울페이 홈페이지(www.seoulpay.or.kr)에서 본 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 간편결제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1월부터)

▶ 그 후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희망하는 민간간편결제사업자의 앱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 후 사용하면 됩니다.

■ 결제방식 : 2가지 방식

① 소비자가 판매점에 비치된 QR 코드를 인식

-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민간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계좌 → 판매자 계좌로 금액 이체(판매자에게 결제완료 내역 통보)

※ 판매자는 기존에 소비자가 현금지불할때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비용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임.



② 판매자가 매장결제기(POS기)로 소비자 휴대폰 QR코드를 인식

- 판매자가 매장결제기(POS기)로 소비자의 스마트폰 민간회사 앱에서 실행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계좌 → 판매자 계좌로 금액 이체



※ ②번 POS기 결제방식은 2018년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만 활용가능하며, 다른 가맹점은 2019년부터 활용가능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기를 보세요

■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자,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 ▶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함께 논의하여 올해 연말까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 법인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이용하려면 어떤 회사의 앱을 설치해야 하나요?

- ▶ 2018년 11월경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회사와 은행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 ▶ 향후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참여회사 및 은행이 변경될 경우에도 수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손님에게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방법 어떻게 안내하나요?

- ▶ 12월초경 배송된 QR세트를 매장에 비치합니다.
- ▶ 손님에게 소상공인 간편 QR결제를 안내합니다.
- ▶ 손님이 앱을 실행해 QR을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하고, 전송하기를 누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 결제내역 확인하기

- ▶ 결제가 완료되면 서울페이 허브시스템을 통해 판매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 ▶ 12월초에 결제내역 확인용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이용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120 다산콜재단 및 서울특별시 서울페이추진반